

편집 및 발행인 : 최상희 원장 직무대행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총괄 : 김동환 감수 : 이연경 전화번호 : 051-797-4913 E-mail : kdong@kmi.re.kr

Contents

▶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인도, 2025 세관 규정 발표

▶ 공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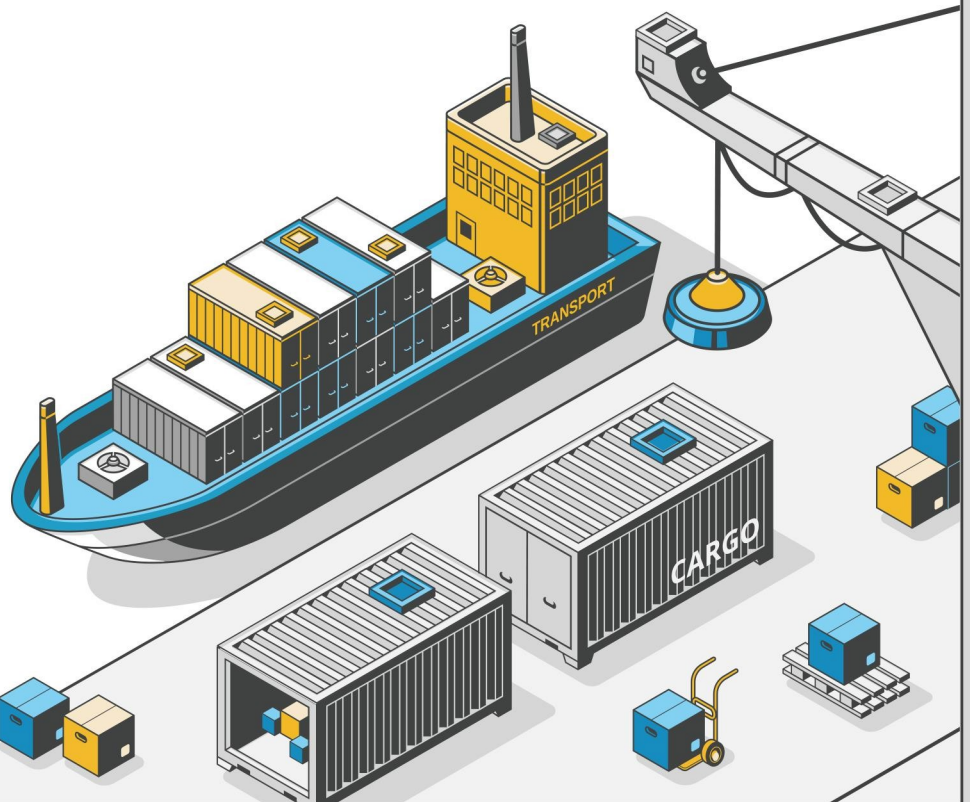
- 「국제물류 정보포탈」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▶ 미주·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- 美, '파나마 운하 운영권' 매입으로 미·중 갈등 고조
... 우리 기업, 여건 변화 예의주시해야

▶ 유럽 물류시장 동향

- 유럽 주요 항만 혼잡도 증가...얼라이언스 재편·파업 등 영향



인도, 2025 세관 규정 발표

- ▶ 인도 정부가 '25년 2월 17일 「세관 규정 2025 (수입업체 시설 내 보관 및 통관을 위한 도착 후 이동 규정)」(The 2025 Customs(On-Arrival Movement for Storage and Clearance at Authorised Importer Premises) Regulations)을 발표함

 - 수입업체는 항만과 세관 창고의 온도 조절 보관시설(climate-controlled facilities)과 같은 일부 시설 미비로 인한 원자재나 부품의 취급 어려움으로 세관 통관 후 직접 자사 시설에서 화물을 보관·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인도 정부에 요청해 왔음
 - 이를 반영해서 도입된 규정은 수입된 화물을 인가된 수입자 시설에서 직접 보관 및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
- ▶ 신규 규정은 AEO(Authorised Economic Operator, 우리 관세법 상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) T2 또는 T3 등급을 보유한 기업에만 적용됨

 - 규정에 따른 화물 보관 조건은 ① 세관법 제58조 또는 제58 A조에 따라 허가된 민간 창고 또는 특수 창고에 보관되어야 하며, ②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관세 품목번호(Customs Tariff Heading) 8517~8548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됨
 - 관세 품목번호 8517~8548에는 통신 장비,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장치, 방송 장비, 전기 회로 관리 장비 등과 같은 다양한 전기전자 부품과 장비가 포함됨
 - 본 품목군에 속한 제품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써 정밀한 보관 및 취급이 필수적이며, 특히 반도체, 회로기판, 리튬이온 배터리 등은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보관되지 않을 때 품질 손상 위험이 있음

- ▶ AEO 자격을 갖춘 기업이 '인가된 수입자 시설'에서 화물을 보관 및 통관할 경우, 신청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심사되어 결과가 통보됨

 - 신청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, 심사 기간이 최대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
 -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수입업체는 화물을 반드시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(통관 또는 반출)해야 함
 - 단, 수입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써 규정된 15일 이내에 화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, 해당 보관 기간은 보세창고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세관장의 판단하에 연장할 수 있음
 - 수입업체는 화물의 입고, 처리, 보관 및 반출에 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

- ▶ 새로운 규정은 인가된 수입업체가 자사 시설에서 화물을 직접 보관 및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류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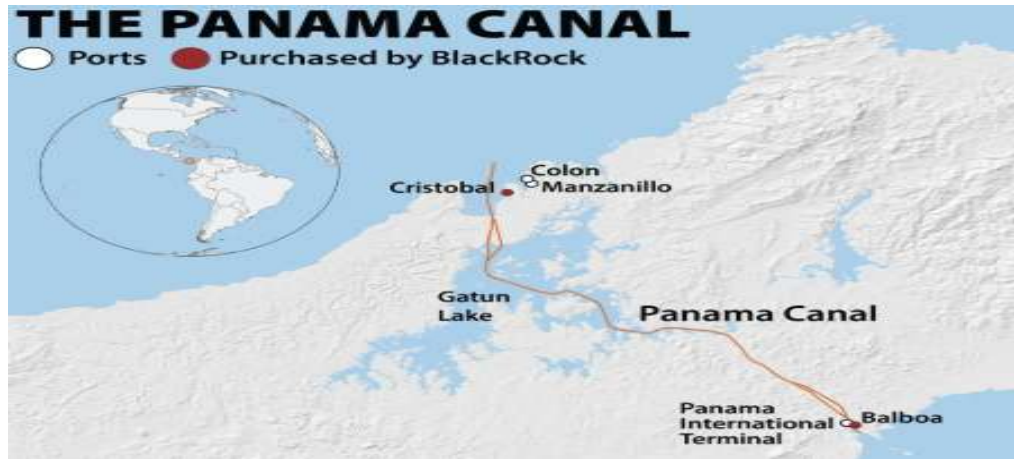
 - 새로운 규정은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여 무역 효율성과 전반적인 물류 시스템

-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
-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물류 시설 및 인프라를 정비하고, 화물의 이동, 보관 및 통관 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 관리와 효율적인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
 - 본 규정의 도입은 인도무역 활성화와 제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
美, '파나마 운하 운영권' 매입으로 마중 갈등 고조... 우리 기업, 여건 변화 예의주시해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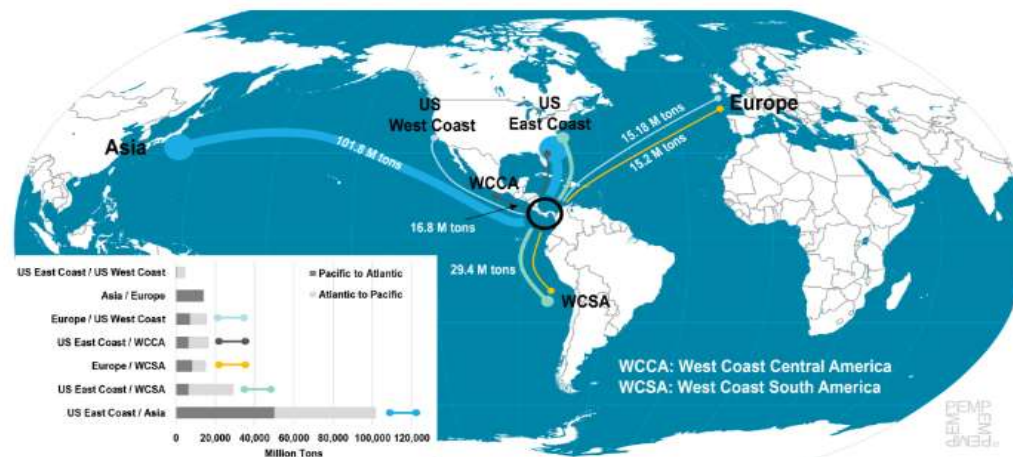
- ▶ 이번 달 초, 美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CK 허치슨으로부터 파나마 운하 양 끝에 위치한 발보아(Balboa)항과 크리스토팔(Cristobal)항 지분 등을 228억 달러에 매입함
 - 美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파나마 운하의 발보아(Balboa)항과 크리스토팔(Cristobal) 항을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 지분을 CK 허치슨으로부터 매입함
 -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는 미국 주도로 1914년 완공 후 영구적 중립성 보장 준수 등을 조건으로 1999년 파나마로 소유권이 이전됐음
 -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CK 허치슨의 파나마 운하 주요 2개 항만 운영이 1977년 체결한 미국-파나마 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으로 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함
 - 특히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중국이 美 무역량의 40%가 통과하는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의 미국행 선박 입항 제한이나 군사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역설함

블랙록이 인수한 파나마 운하 주요 항만



자료: <https://www.voroniapp.com>, (검색일: 2025.03.19)

- ▶ 파나마 운하는 美 무역물동량의 40%가 경유하며, 특히 美 동안으로 향하는 해상운송의 핵심 거점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의 주요 수출 통로로 활용됨
 - 파나마 운하는 약 170개국, 1,920여 개 항만을 연결하는 180개의 해상 경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해상무역의 약 5%가 파나마 운하 갑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됨
 - '24년 파나마 운하는 2억 1,030만 톤의 화물을 처리했으며 이 중 아시아~미국 동안 화물이 전체의 48.4%를 차지했으며, 그 뒤는 美 동안~남미 서부 해안 화물임
 - 또한 '24년 기준 940만 TEU 이상이 파나마 운하 항만을 통과했으며, 특히 발보아항과 크리스토팔항은 이 중 28%와 12%를 차지하는 주요 환적 허브로 전략적 가치가 높음

2024년 기준 파나마 운하 경유 주요 무역로별 물동량 현황


자료: <https://www.voroniapp.com>, (검색일: 2025.03.19)

- 한편, 파나마 운하는 우리 선적 물동량이 4번째로 큰 주요 물류거점으로서 美 동부 제조 허브 확대와 美 동안 물동량 증가에 따라 향후 불확실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
 - 지난해 파나마 운하청(ACP)에 따르면 '24년 회계연도('23년 10월~'24년 9월) 기준 미국 선적의 물동량이 약 1억 5,706만 톤으로 전체의 74.7%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함
 - 그 뒤를 중국(4,504만 톤, 21.4%), 일본(3,373만 톤, 14.6%)이 이었으며, 우리 선박의 선적 물동량은 총 1,966만 톤(9.4%)으로 '23년에 이어 2년 연속 4위를 차지함
 - 최근 파나마의 일대일로 협정 탈퇴에 이어 CK 허드슨의 항만 매각으로 인해 중국의 항만 네트워크에 공백이 생기면서 향후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-중 분쟁 가능성이 높아짐
 - 우리 기업의 美 동부 제조 거점 확대로 美 동안으로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, 이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, 항만 운영 여건 및 규제 변화 등을 예의주시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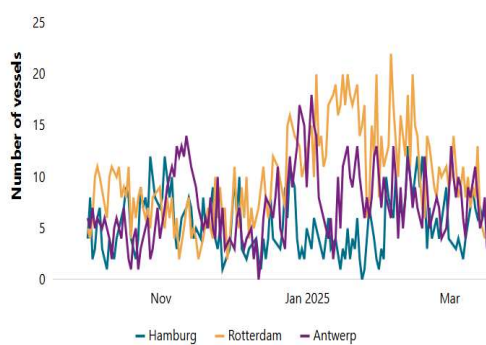
참고자료: www.wsj.com, <https://porteconomicsmanagement.org>, <https://newsroompanama.com>,
(검색일: 2025.03.19)

유럽 주요 항만 혼잡도 증가 ... 얼라이언스 재편·파업 등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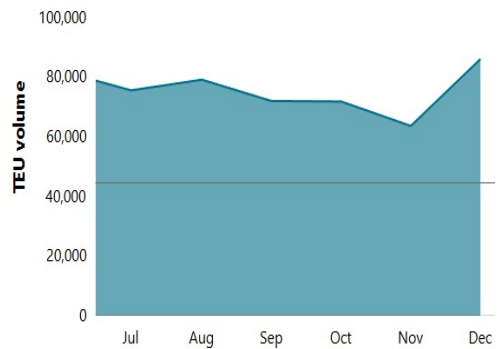
- ▶ 최근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서비스라인 변화, 파업 등으로 인해 로테르담, 함부르크, 브레머하펜, 앤트워프, 르아브르 등 유럽 주요 항만의 혼잡도가 크게 증가됨
- ▶ 앤트워프는 물동량 증가,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네트워크 변경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각 터미널 운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
 - 최근 물동량 증가, MSC 및 Gemini Cooperation의 새로운 네트워크 출시로 인해 로테르담, 함부르크 등 유럽 주요 항만의 혼잡도가 증가했으며 선사들은 대체항으로 앤트워프에 기항함
 - 지난 2월 앤트워프항 터미널 Quay1700 운영사인 DP World는 현재 터미널이 극심한 야드 혼잡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터미널 내 비상 하역과 환적 처리 제한 및 입항선박의 터미널 접안 우선순위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
 - Maersk 관계자는 앤트워프의 모든 터미널이 신규 네트워크의 단계적 도입 및 폐지로 인해 혼잡하고 이전 항만에서의 스케줄 지연으로 선박이 늦게 도착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앤트워프 기항 서비스라인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함

유럽 주요 항만의 접안대기 선박수 및 극동-북유럽 간 컨테이너 운송량 추이

〈유럽 주요 항만 접안대기 선박 수 추이〉



〈극동-북유럽 간 컨테이너 운송량 추이〉



자료: www.joc.com, (검색일: 2025.03.18.)

- ▶ 항만동자 파업으로 인해 함부르크, 로테르담, 르아브르의 접안 대기시간도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항만노동자 파업 여파로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로테르담 Hutchinson Ports Delta II 터미널은 지난 2월 항만자동화 문제를 놓고 벌어진 항만노동자 파업 및 태업의 영향으로 발생한 적체화물 처리 때문에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음
 - 함부르크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예선작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정박지를 확보하는 기간이 평균 3일이 소요되며, 프랑스 부두노동자들의 파업이 반복되면서 르아브르의 정박대기 시간 역시 평균 5.7일로 늘어났다고 HMM은 밝힘

- 또한, 르아브르 파업의 여파로 인해 로테르담 역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평균 정박대기시간 역시 5.6일까지 증가했음
- Kuehne + Nagel의 SeaExplorer visibility platform에 따르면, 현재 로테르담, 함부르크, 앤티워프, 르아브르의 컨테이너야드 및 정박지가 대부분 만석이며, 이러한 상황은 터미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힘

프랑스 항만노동자 파업



자료: www.railfreight.com, (검색일: 2025.03.18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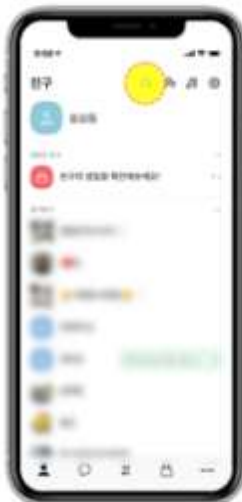
- ▶ 프랑스, 독일 등 유럽 항만노동자 파업, 얼라이언스 재편 등에 따른 여파로 인해 유럽 주요 항만의 혼잡도는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수출입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마련이 필요함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



2. '국제물류 정보포탈' 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